

빠라바와경

(Parabhava Sutta, 파멸경, Sn1.6, 전재성님역)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왓티시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뵤디까 승원에 계셨다.

2. 그때 어떤 하늘사람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제따바나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그 하늘사람은 세존께 시로써 여쭙어 보았다.

3.

[하늘사람]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탓마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세존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4.

[세존]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쉽습니다.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합니다.”

5.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6.

[세존]

“참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7.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8.

[세존]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9.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

[세존]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게 되어 젊음을 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1.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2.

[세존] “성직자나 수행자,
혹은 다른 결식하는 이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3.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4.

[세존]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5.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일곱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6.

[세존] “혈통에 자부심이 강하고, 재산을 자랑하며,
가문을 뺏내고, 자기의 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7.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8.

[세존]

“여색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있어, 버는 것 마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19.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0.

[세존]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1.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2.

[세존]

“젊은 시절을 지낸 남자가
땀바투 열매 같은 가슴의 젊은 여인을 유인하여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잠 못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3.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 번째 파멸입니다. 세존이시여, 열한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4.

[세준]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그와 같은 남자에게, 실권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5.

[하늘사람]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한 번째 파멸입니다. 세준이시여, 열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26.

[세준]

“왕족의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입니다.”

27.

“세상에는 이러한 파멸이 있다는 것을
고귀하고 현명한 사람은 통찰을 갖추고 살피서,
행복의 세계에 이릅니다.”